

## 제 1 장 고레스에서 아구스도까지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을 뵈게 되었군요. 우리가 함께 공부할 '신약배경사' 수업은 신구약성경의 역사적 연결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F.F. 브루스의 신약사를 요약하여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함께 공부하면서, 신약 배경사 과목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준비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시고 정확무오함을 배우게 되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새롭게 깊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땅 끝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에서 신명기 28장 1-14절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15-68절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밝히 예고합니다. 이스라엘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인류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좇아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첫 유월절,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 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통하여,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1002년에 다윗왕국이 세워졌고, 다윗을 이은 솔로몬왕은 962년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성전을 짓고,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로 주전 922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겸손할 때, 다윗은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융성한 제국을 다스리던 솔로몬은,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반동강이 나게 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남북한이 갈려 고통받는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에 범했던 신사참배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여 이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조: 역대하 7:14).

분열 후에도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죄때문에 마침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남유대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극심한 우상숭배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포로와 종의 신세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의 말씀이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암울했던 포로기가 시작될 즈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밝은

예언의 말씀, 곧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곧 남유대의 죄를 40년간 책망하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기는 70년 만에 마칠 것이며, 그 후에 영원히 불변하는 새언약을 주시고 완전한 죄의 용서를 베푸실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10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 유대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기는 주전 515년 제 2 성전이 완성됨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6:15. "다리오왕 육년 아달월 삼일에 전을 필역하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주전 515년 완공된 제 2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 2:9)

초라한 제 2 성전이 어떻게 솔로몬이 지었던 첫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제 2 성전 시대에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신약배경사 과목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지에 그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며, 어떤 비디오나 컴퓨터게임보다 더 재미있고 박력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수업은 성경에 언급된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하니, 지도와 연대표를 꼭 연결시켜서 공부해 보십시오. 단순히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책을 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먼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시대적 정황은 매우 다르답니다. 예컨대 구약 뒷부분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주전 539-332, 참조. 스 1:1-3)과 헬라제국 (주전 332-142; 단 11:23-45)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시대는 이와 똑 떨어져 대략 주전 4 - 주후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누가 복음서의 저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Augustus)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눅 2:1)는 언급을

소개하며 이것을 예수 탄생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즉 이 당시 팔레스틴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에서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 28:30f) 바울은 갇힌 자로서 가게 되었지만 로마가 당시 전 세계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으므로 효과적 복음전도를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3-15).

오늘 강의의 핵심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역사적 공백 기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페르시아(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습니다.)의 첫 왕 고레스는 주전 539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민족의 예루살렘 귀향을 허락한 관대한 전제군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 45:1,4). 페르시아 제국 (현대 이란의 모국)은 200여 년간 세계강국으로 팔레스틴 지방을 지배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의 배경으로 구약에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 지배 하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전 515년에 있었던 제 2 성전의 건립입니다 (학개 2:9;에스라 6:15). 제 2 성전의 건립 이후, 유대인들은 독립국가로서보다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사제공동체로 (priest state)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4세기 중반,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일어나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주전 332년 팔레스타인 땅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정복하고 서방문화와 동방 문화를 적극적으로 융합시켜 헬라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헬라제국이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코이네 그리스어의 세계 확산인데, 주후 3세기까지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정복 직후 주전 323 알렉산더는 찬란한 업적을 뒤로 한 채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수하의 장군들이 헬라제국을 넷으로 분할하여 다스리게 되었는데 (단 11:3-4), 우리가 관심가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두 왕조가 번갈아 다스렸습니다. 주전 320-200년까지는 알렉산드리아에 수도를 두고 이집트를 다스리던 톨레미 왕조 (Ptolemy Dynasty)가 통치하였고, 주전 198년-142년에는 시리아의 안디옥을 수도로 하던 셀류키드 왕조(Selucid Dynasty)가 지배했습니다. 이 두 왕국은 서로 심하게 싸웠는데 그 기록이 다니엘서 11장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종교문제에 있어 관용적이었던 톨레미 왕조는 히브리어로 되었던 구약성경을 톨레미 2세 당시 (주전 250년경) 헬라어로 번역하였고, 그것을 셉투아긴타. 혹은 LXX (칠십인역)으로 부릅니다 (Arist. 4,10-11). 셉투아긴타는 흩어졌던 유대인들(디아스포라)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널리 읽혀 유대교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할례와 음식규례 등을 다 지키면서, 유대인들과 꼭 같이 살아가기 시작하던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일부 이방인들은 유대교의 여러 가지 예식들을 따라하지 않으면서도,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지중해 전역에 흩어졌던 회당을 규칙적으로 방문했던 이방인 개종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무리들은 바울의 복음전도에 크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가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영어처럼 중간시대 세

계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던 그리스어, 곧 헬라어로 구약이 주전 250년경 번역되었고, 또 신약이 다 헬라어로 쓰여 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약성경이 모두 헬라어로 쓰인 사실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언어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헬라어를 복음전도를 위해 놀랍게 준비하셨음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전 198년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셀루키드 왕조는 철저하게 헬라문화를 숭상하며 모든 다른 문화를 배척하던 헬라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유대인풍습, 곧 할례, 율법, 성전제사, 음식규례, 절기 등을 지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그 것을 어길 때는 극형에 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 제단에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셀루키드 왕조가 강대국이기는 했지만 주전 2세기 이미 세계적으로 뜨기 시작했던 로마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제국에 패배하고, 로마제국에 셀루키드 왕조가 공물을 바쳐야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누구에게서 짜내었을까요? 당연히 그 수중에 있었던 약소국가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성전은 가장 탐나는 금고였습니다. 셀루키드 왕조의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4세는 신이라고 자처하며 스스로를 신격화하였고, 에피파네스 (현인신)라고 자칭하는 열렬한 헬라주의자였습니다. 모든 문물을 헬라적인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제사를 폐지하고, 그 보물을 약탈하고, 제우스 신상으로 예루살렘 지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조상의 종교를 그 누구보다 존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백성들은 당당히 그의 신성모독에 대항하여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조직적으로 봉기한 사람은 바로 늙은 제사장 맛다디아 (Mattathias)와 그의 다섯 아들-요한, 시몬, 유다 마카비우스(Judas Maccabaeus), 엘르아잘,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들 형제들 가운데 대표적 용사는 유다 마카비우스로, 그는 게릴라전으로 맞서서 주전 164년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쟁기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정화' 사건을 기념해 매년 12월 25일 유대인들은 '하누카'라는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 독립운동 및 종교정화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맛다디아의 아들들 중, 그들의 대적 셀루키드 왕조와 결탁한 것으로 의심을 불러 일으켰던 요나단은 경건한 유대인들에 의해 주전 143년 처형되었습니다. 그 후에 맛다디아의 둘째 아들 시몬이 대제사장직을 맡아 그의 후손들이 그를 이어 다스리게 됨으로 주전 62년까지 유대는 독립왕조로서의 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이 왕조에서 시몬의 증손이었던 힐카누스와 아리스토틀로 형제가 왕권을 두고 분쟁하는 동안 힐카누스의 신하였던 안티파테르는 로마와 손잡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주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는 유대를 점령하였고, 그 때부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작은 열강에 속했던 셀루키드 왕조의 쇠퇴 이후 팔레스타인 땅이 로마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경의 하나인 솔로몬 시편을 보면, 로마의 통치 및 성전 모독에 대한 언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폼페이 장군은 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번 속죄일에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까!

신약성경에도 나오는 헤롯 왕가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그 기원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하스모니안왕조를 무너뜨린 안티파테르는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 로마 시민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미움을 받던 그가 주전 43년 암살되자 그의 두 아들 파사엘과 헤롯이 '분봉왕'으로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됩니다. 문제는 주전 40년 팔레스타인 땅이 파르디안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스모니안 왕가의 안티고누스를 제사장 겸 왕으로 세웠고, 파사엘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로마로 도망갔고, 거기서 정식 '왕'으로 인정받기에 이릅니다. 주전 37년 로마의 도움을 받아 헤롯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안티고누스를 처형합니다. 백성들은 마카비의 후예인 하스모니안 왕가 후예인 안티고누스를 합법적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왕위 찬탈자로 에돔의 후예인 헤롯을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실상부한 헤롯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에 충실한 하수인으로 유능한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여러 식민지와, 그 중에서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옥타비안, 즉 아우구스토 황제는 뛰어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통치지역을 나누어, 평화로운 곳은 원로원이 다스리게 하고 골치 아픈 곳은 군대와 함께 총독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유대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었는데, 이런 동방의 영토들은 본래 왕가의 사람들을 '분봉왕'(client kings)으로 세워 다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빌라도 총독과 헤롯왕이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탁월했다는 것은 일부 도시의 경우 다소간 독립된 성격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 같은 도시는 그 영광스러운 과거를 감안하여, 지방 자치의 자율성을 가진 연방도시의 신분을 얻었고 아시아의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요에 직면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백성의 서기장은 도시 시민의 불법적 행동 때문에 로마가 이 도시의 특전들을 박탈할까봐 걱정하는 장면이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행 19:40). 이상에서 보듯이 로마는 헬라문명 자체를 존중하고 보존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헬라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갖는 종교적 특성을 심분 이해하여, 로마는 예루살렘의 신성한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 군기들은, 우상을 거부하는 십계명의 둘째 계명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유대 땅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권이 보장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통치의 차원에서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수준이었고, 이 긴장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공부한 큰 줄거리만 다시 요약해 봅시다. 첫째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도 페르시아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 지배 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열강들에 대한 유대 민족들의 반응은 다양하여, 제국의 정책에 따라 친화 혹은 반항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셋째, 구약에서 에스라의 제 2 성전으로 일어난 다윗왕조 회복의 열망은, 마카비 혁명 후 들어선 하스모니안 왕조와 헤롯 왕조로 말미암아 철저히 좌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백성들의 메시아대망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시간적 배경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

나눔께서는 역사의 주인 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제국을 일으키시고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과의 가르침입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가장 크고 강한 모든 제국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고, 스러졌으며, 가장 큰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대왕도 메시아왕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 52:7 "Your God reigns.").